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1:1절 말씀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수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끄러움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구하는 것을 종종 찾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치' 또는 '수치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보통 명예나 존엄성의 반대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군인은 그 반대의 의미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예를 얻는 것 또한 그 반대의 측면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는 이러한 수치와는 좀 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조금 전에 시편 71:1에서도 말씀하였지만 수치를 가리켜서 '영원한 수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평생을 잊지 못할 만큼 아주 커다란 수치를 당했다면 그것이 비록 예전에 있었던 사건일 지라도 평생의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원한 수치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수치'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것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멸망을 당하는 것 즉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것이 왜 수치입니까? 그것은 지옥에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을 믿기보다

는 귀를 닫고 눈을 가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 나름대로는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죽음 이 후에 있는 심판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 앞의 이익이나 즐거움만을 쫓아 사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고 게으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한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않으니,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자기발로 차 버리고 결국에는 멸망 즉 지옥에 가게 되니 이것이 수치이고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왠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쿨 해 보이고 더 부자 같아 보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이 마음적으로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73편 말씀에 보니까 이 시편기자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 더 부자로 살아가는 모습, 장수하고 강건하며 도무지 고난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 고백하기를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잔뜩 시험에 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당장이라도 혼을 내주시고 망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상황은 오히려 그와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은 초라해 보이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 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 참아야 하고 손해도 보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도 마음껏 싸울 수도 없는 자신이 너무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 시편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빌 3:19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급박하게 일어났는지 오늘 73:18-19에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 등 가시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그 날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불못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 더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힘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전혀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